

지역 소식통

부안군-행안부, 인구감소 해법 모색 정책간담회

부안군이 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소기흥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함께 인구감소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택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부안군청 주요 부서장들과 농업법인 이레농원 박연미 대표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및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통해 부안군은 인구현황과 지역여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군정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부안군은 △격포권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건립, △한지학교 조성, △위케어 센터 구축 등 총 8개의 사업계획을 제출해 22년과 23년 2개년 총 14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흠커밍 귀농귀촌 홍보 전단 · 물품 전달

부안군에서는 8일 부안 IC 요급소에서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흠커밍 귀농귀촌 홍보 전단과 홍보물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흠커밍 캠페인은 부안 IC 통과 귀성객에 전복도로공사 부안지사 협조로 Drive-through(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예비 귀농 귀촌 희망자를 발굴하고, 고창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출향인들이 장래에 고창 부안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귀농귀촌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되돌아 오는 U형대의 귀농인구는 67.0%, 귀촌인구는 32.4%를 차지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함께 매년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상담홍보전을 통해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교육 및 행사를 해오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활력넘치는 명절 보내기”

고창군,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 방역·비상 진료체계 구축

고창군이 오는 12일까지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총괄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교통, 물가안정, 주민불편해소, 관광안내 등 11개의 대책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추석 연휴를 통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더불어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방역대책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한편 명절 기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 당번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또 특별수송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차량 소통상황과 안전운행을 관리하는 등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으로 관광객과 귀성객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대책반을 통해서도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서민 생활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어린 꽃무릇이 붉게 피어 오르는 선운산도립공원을 비롯한 고창내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관리해 추석 연휴기간 쾌적하고 깨끗한 고창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 대책을 추진하고, 추모의집·자연장시설 주변 교통관리, 상하수도 불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중 군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창읍성, 관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등을 추석 당일 무료개방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7일 추석명절을 맞아 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 활력 불어넣기

부안군, 추석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부안군은 7일 추석명절을 맞아 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장보기행사는 부안상설시장을 시작으로 출포상설시장, 곱소시장,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서별 장보기 장소와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권익현 군수와 지역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등 500여명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부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명절선물과 농특산물, 제수용품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고물가 상황의 지속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추석명절을 준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8일부터 13일 9시까지 부안미실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등 추석명절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신규사업 26건 반영

고창군, 국회 단계 신규·계속사업 최대 반영 총력 대응 계획

고창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신규사업 26건이 반영되는 등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장장이 순항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은 신규사업은 총 26건에 총사업비 1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정부 안에 담긴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소제지권 침수방지

를 위한 상하지구 풍수에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342억원) △구시포항 확대를 위한 구시포항 국가어항 준설로 투기장 조성사업(290억원) △수남지구 배수개선사업(70억원)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00억원)과 △공공 하수관로 정비사업(89억원) △고창치리구역(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58억원) 등 군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대형 인프라 사업이 신규로 담겼다.

또 세계유산관련 사업과 각종 농업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등이 신규사업 안에 담긴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소제지권 침수방지

를 위한 상하지구 풍수에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342억원) △구시포항 확대를 위한 구시포항 국가어항 준설로 투기장 조성사업(290억원) △수남지구 배수개선사업(70억원)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00억원)과 △공공 하수관로 정비사업(89억원) △고창치리구역(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58억원) 등 군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대형 인프라 사업이 신규로 담겼다.

정읍시, '2023년 주요 시책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할 시책과 정읍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시장 운영 방향 구체화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열린 3차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36개 국·과·소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소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굴한 22개의 시책을 검토했다.

또 부서별로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23년 역점으로 추진할 신규시책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 공약사업 등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과 정점,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민선 8기 시장 운영 방향 구체화의 근간이 되는 신규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정부 정책 방향과 발맞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 현안 해결과 정읍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시책 발굴을 위해 주력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된 정읍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에 중점을 뒀다.

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비롯한 대형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추가구비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와 고창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2023년도 국가예산 목표액(1600억원)을 달성해 낼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면서 “향후 국회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해 고창군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하반기 발표가 예정된 것

정읍시, 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시행

정읍시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을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기초접종(1차·2차)을 시행한다.

스카이코비원은 전통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항원 유전자(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면역반응 강화 및 중화항체를 유도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백신 등에 활용된 플랫폼이 적용돼 장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어하는 능력이 델타주보다 27배, 오미크론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근육통 등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증이며, 접종 후 3일 이내 소실되는 등 안전성이 강화됐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기관은 정읍 아산병원, 정읍시당병원 2개소다. 1·2



차 기본접종을 4주 간격으로 항원 1바 이알과 면역증강제 1바 이알을 혼합해 삼각근에 0.5ml를 접종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예약 후 13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 또는 질병관리청,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